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물류·해사산업 연구본부	성명	김동환	직급	전문연구원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주최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참가 <input type="checkbox"/>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input type="checkbox"/> 세미나, 교육, 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					
관련사업 (예산항목)	○ 출장목적 : 동유럽 물류시장 국제물류 투자유망사업 발굴 및 우리 물류기업 동향 조사 ○ 관련사업 - 「2023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운영」(수탁) / (사업기간 : 2023.01.01. ~ 2023.12.31.)					
출장기간	2023. 5. 14.(일) ~ 2023. 5. 25.(목)			출장지	· 헝가리(부다페스트) · 슬로베니아(코퍼) · 크로아티아(리예카, 자그레브) · 독일(함부르크) · 폴란드(바르샤바)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05.14(일)	부산 → 인천	인천공항 이동			
	05.15(월)	인천(08:15) → 부다페스트(14:50)	항공 이동		LO2002	
	05.16(화)	· (오전) 하나로TNS 헝가리법인 · (오후) LX판토스 헝가리법인	- 하나로TNS 헝가리법인 미팅 및 자체 물류센터 실사 - LX판토스 헝가리법인 미팅 및 레일터미널 실사			
	05.17(수)	· 부다페스트(09:00) → 크로아티아 자그레브(14:00) (오후) KOTRA 자그레브	- 헝가리 → 크로아티아 이동 -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미팅 및 현지 기업 간담회		렌트카 이용	
	05.18(목)	· 크로아티아 자그레브(08:00) → 리예카(10:00) · (오전) 리예카 항만공사 · 크로아티아 리예카(14:00) → 슬로베니아 코퍼(16:00)	- 자그레브 → 리예카 이동 - 리예카 항만공사 미팅 및 리예카항 터미널 방문 - 크로아티아 → 슬로베니아 이동		렌트카 이용	
	05.19(금)	· (오전) 코퍼항만청 · (오후) 포스코플로우 코퍼법인 · 슬로베니아 코퍼(14:00) → 이탈리아 베로나(18:00)	- 코퍼항만청 미팅 및 코퍼항 터미널 방문 - 포스코플로우 코퍼법인 미팅 및 물류센터 실사		렌트카 이용	
	05.20(토)	· 이탈리아 베로나(06:30) → 독일 뮌헨(07:30) → 함부르크(10:00)	- 독일 이동		LH9467 LH2054	

	05.22(월)	· (오전) 독일 한상물류기업 · (오후) 현대글로벌비스 유럽법인	- 독일 현지 물류기업(한상기업) 간담회 - 현대글로벌비스 유럽 법인 담당자 미팅	
	05.23(화)	함부르크(11:20) → 바르샤바(12:50) · (오후) MTL 폴란드법인	- 독일 → 폴란드 이동 - MTL 폴란드법인 미팅 및 항공 화물창고 실사	LO0400
	05.24(수)	바르샤바(12:10) → 인천(06:20, 수)	항공 이동	LO0097
	05.25(목)	인천(06:20) → 부산		
출장성과	<p>○ 출장목적 달성 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운영' 내 핵심과업으로 동유럽 물류시장 투자유망지역 발굴 및 국가별 물류시장 이슈 조사를 위해 현지 진출 우리 물류기업 및 해외 항만 관계자를 대상으로 미팅을 수행함 -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 담당자 미팅을 통해 동유럽 물류시장의 이슈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해외진출 지원정책 수요 파악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 <p>○ 주요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유럽 진출 우리 물류기업의 현지 여건 및 이슈 파악을 통해 해당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파악했으며, 현지 진출 우리 물류기업 및 해당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공공 부문 인프라 투자 등 실질적인 정책 발굴을 위한 기초 조사 완료 - 동유럽 물류시장 진출 확대 및 지원을 위해 해외사업 투자 설명회 개최시 현지 항만 관계자 초청을 통해 해당 시장 주요 정보 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방안 마련 			
향후계획	<p>○ 출장 성과 공유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유럽 물류시장 투자유망사업 분석' 보고서 발간 및 해당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물류 기업에 배포(정보포탈 게시) 등 동유럽 신규 진출을 위한 정보공유 추진 예정 <p>○ 정책화 등 활용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사업 투자 설명회' 개최 및 공공부문(BPA,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해외물류인프라 개발 지원 정책 발굴 등 동유럽 물류시장 대상 공공부문 주도의 인프라 발굴시 현지 시장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방안 등을 적극 제안 예정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없음			

* 주요업무 수행 결과 별지 작성 후 첨부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수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토스 헝가리 법인은 판토스 유럽 9개 유럽 법인 가운데 운영기간이 가장 짧은 법인으로 2019년 하반기 이후 본격 운영 개시함 - 동 법인은 헝가리 내 배터리 생산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물류서비스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대기업(삼성SDI 및 SK온 등) 2차 벤더의 제조물량을 중심으로 헝가리 내 물류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레일터미널 운영 등 추가 사업 추진 중 - 판토스 유럽본부(폴란드 : LG에너지솔루션 제조공장 위치) 내 별도의 배터리사업실 신설을 통해 동유럽 내 배터리 관련 물동량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유럽본부 내 판토스 직원 규모 약 1,000명에 달함 - 헝가리 내 배터리 물동량은 해상을 통해서 주로 이용되며, 과거 코로나19 이후 TCR을 이용한 철송의 수요가 높았으나, 현재 엔데믹을 맞아 운임이 대폭 하락해 코로나19 이전 해상수요를 온전히 회복함 - 판토스 헝가리법인은 향후 철도터미널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TCR 연계 서비스 및 코퍼항-부다페스트 연계 철도 물류 확대를 위해 직접 인프라 확보 등 적극 추진 중 - 판토스는 현재 부다페스트 인근 및 코퍼항 인근을 대상으로 인프라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시장 내 원활한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창고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함 - 아드리아해 3개 항만의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항만 인근 배후지역 등을 대상으로 창고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항만 인근의 창고 수요가 높으나, 항만의 규모가 작고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항만 인근 내 창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임 - 이에 창고의 수요가 항만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인력 수급 등의 문제로 부다페스트 혹은 자그레브 등을 중심으로 창고가 신설되고 있는 추세임 - 일부 글로벌 선사 및 물류기업 등은 창고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모면에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해당 기업들도 창고 추가 확보 등을 고려하고 있음 -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코퍼항 인근 지역 대상으로 현대글로벌비스와 '대우로지스틱스-포스코플로우-코퍼항만창' 컨소시엄이 코퍼항 야드 내 철제품목 전용 창고를 운영하고 있음 - 헝가리 내 취업률이 97%에 달할 정도로 일자리 공급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에 잦은 이직 등으로 헝가리 진출 우리 기업 대부분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부 고학력 인력 등은 독일 등 서유럽 시장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높은 인력 수요로 인해 임금 또한 상승하고 있어 원활한 현지 사업 운영에 어려움 가중 - 향후 물류인프라 수요가 높은 지역은 아드리아해 3개 항만 중 코퍼항 및 리예카항으로 특히 리예카항 인근 물류창고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업무③	05.17(수), 15:00~17:00 / KOTRA 자그레브무역관
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 KOTRA 자그레브 채희광 관장 ○ 주요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유럽 시장(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내 우리 기업 현지 진출 동향 · 동유럽 시장 핵심 산업군 및 주요 산업별 이슈 · 2차 전지 관련 우리 제조기업 진출 동향 및 향후 전망 · 우리 해운-물류기업 동유럽 진출 및 해외투자 추진 관련 애로사항 등
수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 진출한 우리 물류기업 중 대부분이 코퍼항을 이용해 인바운드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으나, 하나로TNS는 리예카항과 코퍼항 수입 비중이 약 7:3수준으로 리예카항이 높으며 향후 비중을 점차 늘려갈 계획임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유럽 시장 대상 아드리아해에 위치한 핵심 항만으로 코퍼항을 꼽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이 코퍼항을 이용하고 있으나, 철송과 연계 미흡 및 하역처리 속도, 열악한 인프라 등으로 운송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대부분의 기업이 코퍼항 하역 후 트러킹을 이용해 부다페스트까지 운송하고 있으며, 내륙 운송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트럭기사 인력 수급이 어려워 트러킹 규모 확대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아드리아해에 위치한 3개 항만이 공통적으로 인프라 취약, 철송(단일노선) 구축 미흡,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 저하 지속 - 코퍼항만청의 주요 타겟시장은 오스트리아 및 체코가 핵심으로 과거 원자재 중심의 벌크화물 및 원유 등 다목적부두로 출발해 컨테이너 화물까지 처리하고 있으나, 항만 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 및 의지 부족해 결국 CMA CGM이 직접 나서서 항만 개발을 추진함 - MSC는 이탈리아 트리에스테항, 머스크는 크로아티아 리예카항 개발 및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등 글로벌 3대 선사가 각각 동유럽 및 지중해 연안의 타겟 항만을 선정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우리 기업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항만 개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
업무④	05.18(목), 10:00~13:00 / 리예카항만공사 담당자 미팅 및 터미널 실사
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 리예카 항만공사 Denis Vukorpa 사장 및 Vojko Kocijan 투자본부장 ○ 주요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예카항 '컨' 및 벌크터미널 운영 현황 · 주요 기항 선사 및 국적선사(HMM) 기항 전망 · 신규 터미널 및 배후단지 개발 계획, 핵심 산업군 수요 전망 · 리예카항 항만배후지역(Matulji) 대상 우리 물류기업 신규 사업 추진 여건 · 리예카항 연계 동유럽 시장 내륙운송 공급망 현황 및 전망
수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예카항은 동유럽 내 핵심 항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동유럽 진출 우리 기업의 이용 비중은 열악한 인프라 등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우리 기업은 리예카항 대신 코퍼항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리예카 항만공사는 부산항만공사와 리예카항 인근 배후지역 내 복합물류터미널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터미널 내 물류센터 및 Depot 등 다양한 물류시설 개발을 계획하고 있음 - 이에 부산항만공사의 투자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투자 및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나, 코퍼항 대비 우리 기업의 물동량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임 - 공공부문(BPA)의 참여를 통해 우리 기업의 투자 유치 등을 모색해볼 수 있으나, 리예카항의 구조적인 인프라(트러킹, 철송, 야드면적 등)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리예카항만공사 관계자는 우리 해운-물류기업 대상 적극적인 마케팅 계획 수립 중 - 리예카항의 주요 이슈는 Maersk의 '컨' 터미널 개발 참여 및 리예카항 기항을 통한 항만물동량 증대 등을 꼽을 수 있으며, 현지 철송기업(ENNA)과 연계 항만 운영의 주도권 선점 중 - 또한 신규 '컨' 터미널 개발 및 항만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 항만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항만개발을 통해 향후 물동량 처리 능력이 180만 TEU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항만개발과 함께 철도 인프라 구축이 진행될 예정임 - 또한 슬로베니아 코퍼항과 향후 우리 해운-물류기업 유치 및 물동량 창출 등에서 경쟁할 것으로 전망되며 머스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물동량 유치에 적극 대응할 예정임
업무⑤	05.19(금), 10:00~12:00 / 코퍼항만청 담당자 미팅 및 터미널 실사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 코퍼항만청 Borut Semrl 마케팅본부장 외 ○ 주요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퍼항 '컨' 및 벌크터미널 운영 현황 · 코퍼항 내 국적선사(HMM) 기항 유치 마케팅 전략 및 추진 전략 · 코퍼항 '컨' 야드 및 배후단지 내 창고 운영 현황 및 개발 수요 · 코퍼항 연계 철송 운영 현황 및 미래 비전 등
수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에 진출한 우리 물류기업의 대부분이 코퍼항을 이용하고 있으며, 2차 전지를 비롯해 다양한 소재 및 부품 산업의 성장을 미루어 볼 때 향후 코퍼항의 물동량 규모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헝가리 시장은 우리 대기업 제조사 중심으로 물동량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 기업의 물류를 담당하는 물류기업이 중점적으로 헝가리 시장에 진출한 사례가 대부분임 - 일부 추가 제조시설의 건설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관련된 물동량도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헝가리 물류시장 내 신규 진입의 경우 우리 기업 간 물동량 유치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판단됨 - 헝가리 물류시장 내 공공부문 인프라 사업에 적합한 모델로 레일터미널 구축을 제안하며, 일부 유럽의 철도기업들이 헝가리 철도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나, 갠트리 크레인 등 시설 미비, 노후화, 단선 구조, CY/ICD 시설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 - 전반적으로 아드리아해에 위치한 3개 항만이 공통적으로 인프라 취약, 철송(단일노선) 구축 미흡,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 저하 지속 - 코퍼항만청의 주요 타겟시장은 오스트리아 및 체코가 핵심으로 과거 원자재 중심의 벌크화물 및 원유 등 다목적부두로 출발해 컨테이너 화물까지 처리하고 있으나, 항만 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 및 의지 부족(결국 CMA가 나서서 독자 개발) - 현재 코퍼항 철송은 Tresten이 담당, 리예카항 철송은 ENNA가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레일터미널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항만의 정체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물류서비스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업무⑥	05.21(월), 10:00~12:00 / 현지 한상물류기업 미팅
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 FIOTHUS 김영환 대표 외 ○ 주요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시장 내 한상물류기업 현황 및 규모 등 · 한상물류기업 사업 행태 및 유럽 물류시장 내 역할 등 · 현지 물류기업 관점의 동유럽 물류시장 전망 및 핵심 이슈 등 · 유럽 내 우리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투자사업 및 정부정책 수요 등
수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물류시장 관점에서 함부르크항, 브레머하펜항 2가지 옵션이 존재하나, 함부르크항은 주변 거점 대시 물류인프라 잘 구축, 과거부터 동유럽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의 집하지역으로 트러킹 및 레일터미널 활용이 뛰어남 - 함부르크항은 하파그로이드 및 디얼라이언스 기항, 브레머하펜은 2M 기항 - 과거 머스크가 러시아 상트페테부르크항 기항을 목적으로 그단스크항을 경유항으로 사용하기 위해 투자를 지속했으며, 현재 머스크, COSCO, OOCL 3개 선사만 기항 (머스크, 광양항 → 그단스크 직항 서비스 제공) - 그단스크항-브로츠와프 철송 연결, PKP 폴란드 현지물류기업 레일터미널 운영 중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물동량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수입이 99% - 최근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관련 물동량 대부분 그단스크항을 통해 들어오고 있으며, 이에 항만 인근 창고 및 야드 과부족 현상 지속 / 지가 상승 등으로 폴란드 현지 기업들 물류창고 건설이 지속되고 있음 - 이에 공공부문의 그단스크항만 개발 및 야드, Depot 등 항만 인근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며, 향후 그단스크항 주변을 대상으로 풍력발전 단지 조성 예정 -> 야드 공간 많이 필요해 투자 적합성 검토 필요 / HMM 기항 고려 필요 - 최근 글로벌 해운항만물류기업들은 선도적으로 남유럽 항만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리예카항(머스크), 코퍼항(CMA CGM), 피레우스(COSCO), 콘스탄차(DP World) 등등 - 과거 로테르담, 함부르크, 앤티워프를 중심으로 유럽 내 물동량이 움직였다면, 공급망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각 기업별 전략적으로 터미널 확보에 나서고 있음 - 특히 루마니아 콘스탄차항은 러-우크라 사태 이후 중앙아시아 및 남유럽의 핵심 물류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및 러시아 경제제재 해제 등 이슈 관련 글로벌 물류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향후 전기차 생산 증대 전망을 토대로 기존 내연기관 관련 부품 재고 수요 감소, 배터리 관련 물류 수요 증가, 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 등) 수요 증가, 신규 물류수요 증가, 충전 인프라 수요 증가 등 전망
업무⑦	05.22(월), 15:00~17:00 / 현대글로벌비스 유럽법인 미팅
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 현대글로벌비스 유럽법인 이경호 소장 외 ○ 주요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비스 독일법인 주요 사업 현황 및 물류시장 주요 이슈 · 함부르크항 연계 동유럽 물류시장 주요 동향 · 우리 해운-물류기업 함부르크항 이용 현황 및 향후 투자유망사업 발굴 · 글로벌비스 유럽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브레멘하퍼항 선석 확보 추진 동향 및 향후 물류 인프라 구축 전략
수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비스 유럽법인의 핵심 사업 범위는 체코/슬로바키아 현대기아차 제조시설의 부품 수급 및 CKD 공급 역할 메인 사업 - Ro-Ro선(부산발 유럽행) 70% 자사선대 운영 및 30% 용선 운영 - 코로나19 이후 컨테이너 운임시장의 변동 폭이 큰 반면에 RoRo선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으로 운임 변동 폭 비교적 낮음 - 글로벌비스 유럽 법인은 기존 현대기아차 제조공장의 부품 공급 역할뿐만 아니라 폐배터리 사업 및 중고차 사업 등 현지 시장 대상 사업 확장 적극 추진 중(특히 국내 중고차 사업 모델을 대상으로 현지 유럽 시장 내 적용 계획 중) - 체코 및 슬로바키아 제조시설 인근 물류센터를 임차 운영하는 우리 기업이 다수 존재하며, 현대기아자동차 벤더사 및 협력 물류사가 대부분임 - Ro-Ro선 시장은 '컨' 시장과 별개로 코로나19이후 운임 상승 추세 지속 - 기존 유럽 시장 내 현대기아차 물동량 담당 - 현재 글로벌비스 국내 시장 중고차 시장 '오토벨' 출시 이후 중고차 시장 공략 지속 -> 유럽 시장 내 딜러 역할을 통해 '오토벨' 과 같은 중고차 딜러 역할 정착 시도 중 - 현대기아차 생산 공장 기준 연간 생산량 20만대 이상일 경우 생산공장 인근 물류거점 구축을 통해 자동차부품 지속 제공, 20만대 미만일 경우 '컨' 공급으로 부품 수급 균형 유지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및 터키 약 20~25만대 연간 생산, 체코/슬로바키아 30-35만대 생산으로 유럽 시장 내 약 100만대 생산량 유지 - 체코/슬로바키아 인근 물류센터 운영 한국물류사 다수 존재 - 체코/슬로바키아 공장 생산 물량 트러킹 및 레일을 통해 브레머하펜항으로 이동 북유럽 및 오세아니아/중동 시장으로 운송 - 향후 아드리아해 3개 항만건설 및 인근 물류인프라 구축시 남유럽의 핵심 수출입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 최근 물동량 움직임 북유럽 -> 남유럽 이동 증가 추세 지속 - 공공부문 인프라 투자 방안 - 제조인프라 인근 공공부문 창고인프라 구축으로 우리 중소수출입 화주기업 및 물류깁버 입점 -> 저렴한 요율 및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요율 제공 등 다양한 혜택 기반 인프라 제공 구축 필요 - 해외 물류센터 비즈니스는 현지 물동량 확보, 임대요율 변화 등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며, 공공 부문 주도의 물류인프라 구축이 임대요율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 가능 - 포워딩기업의 물류센터 운영 여부에 따라 트러킹 사업까지 확장 가능하며, 포워딩-창고-트러킹 연계 다양한 물류서비스 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 가능으로 현지 물류거점 확보는 유럽시장 내 물류기업의 핵심 역량이 될 것으로 전망됨
업무⑧	05.23(화), 14:00~16:00 / MTL 폴란드법인 미팅
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 MTL 조명래 법인장 ○ 주요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유럽 내 폴란드 물류시장 주요 이슈 및 동향 · 폴란드 물류시장 내 우리 물류기업 진출 및 사업 수행 동향 · 그단스크항 연계 내륙 운송 핵심 거점 및 주요 운송 경로 · 해상 및 항공화물 연계 동유럽 물류시장 내 우리 기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폴란드 내 물류거점(물류센터, Depot 등) 확보 관련 유망사업 논의
수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시장 내 전반적인 물류기업의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컨 운임 30% 이상 대폭 하락 및 물동량 감소로 물류기업 매출액 감소 지속 -> 우리 대기업 물류사를 중심으로 매출 성과 증대를 위해 1,2차 벤더 물동량까지 모두 차지하는 등 물동량 유치 경쟁 심화 - 폴란드 물류시장은 향후 신공항 건설 및 고속철도 구축 등 신규 건설 프로젝트에 따른 물동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그단스크 활용 예정) 등 긍정적으로 판단됨 - MTL 폴란드법인은 형제 브로츠와프 3개, 바르샤바 1개 등 폴란드 내 4개 창고를 임차운영 중이며, 현재 그단스크항 인근 추가 창고 운영 고려 중 - 폴란드 물류시장 내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최근 그단스크항 항만 내 적체 및 야드부족으로 반출입 지체 지속되고 있으며,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창고 임대료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물류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 - 글로비스 폴란드법인(아담폴) 그단스크 Ro-Ro 터미널 운영 및 레일터미널 운영을 통해 완성차 물동량 처리하고 있으며, 추가로 야드 운영 사업을 고려하고 있음 - 폴란드 내 핵심 제조기업으로 LG전자 및 LG에너지솔루션이 대표적이며,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 물류기업은 대부분 LG그룹의 물동량을 기반으로 현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2035년 유럽 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금지되는 만큼 유럽 내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 자체 배터리 생산을 준비 중이며, 이러한 추세가 확대될 경우 우리 배터리제조기업의 물동량(생산량) 감소 → 우리 물류기업 물동량 감소 - 폴란드 내 핵심 물류지역은 브로츠와프로 국내 물류사 대부분 해당 지역에 위치(LG에너지솔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p>루션 생산시설 위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로츠와프는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 지역으로 과거(2004년) LG디스플레이 제조시설 구축 → 해당 시설을 토대로 LG에너지솔루션 생산공장 신설 및 증축 → 관련 벤더사 및 제조사 입주 확대로 생산, 물류 등 대규모 산업중심지로 성장 - 해당 지역 내 판토스, 유니코로지스틱스, 에어컨테이너로지스틱스, PGL 등 국내 물류기업 진출 및 기업별 물류창고 임차 운영 중 - 브로츠와프는 독일 국경지역으로 서유럽으로 운송 용이 및 그단스크, 브레멘하퍼, 함부르크항 등과 접근성이 용이하고 물류비 절감 등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 - 또한 폴란드 내 임금 상대적 저렴(유럽 기준), 인력 수급에 이점 등으로 대규모 생산시설 입점, 아마존 물류센터 5개 운영 중 등 국내외 기업 다수 입주 - 러-우크라 사태 이후 러시아로 들어가지 못하는 화물의 보관 거점으로 전쟁 이후 재고가 크게 늘어나 창고 수요 급등 - 폴란드 물류시장은 LG에너지솔루션 중심으로 배터리 생산 및 폐배터리 물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중이며, 나노 및 신소재 관련 산업 및 생산공장 신설 전망에 따라 물동량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이에 폴란드 진출 신규 물류기업 매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

* 주요 업무 내용을 10개 내외로 작성

* 업무별 수행 결과는 각 700자 이내로 작성(관련 사진, 도표 필요시 추가)

* 보고서 총 분량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필요시 조정)